제대로 된 성교육서가 없다

우리 현실에 바탕한 전문 연구 부족

'성(性)'이 인간의 화두가 아닌 때가 있었을까. 그러나 요즈음 부쩍 그 관심이 노골화한 듯하다.

주부대상의 아침프로에서는 부부간의 '성 트러블'이 공공연히 호소되고 그로 말미암은 이혼사례도 심심찮게 접하게 된다. 스포츠 신문들은 외설스런 조크와 만화와 더불어 '성의학 교실' 코너를 따로 마련하고 있다.

입밖으로 내놓아봤자 쑥덕거림이었고 그것도 제 방의 창문을 넘어나지 않던 은밀한 '방중술(房中術)'들이 이제 대문을 넘어 한길로 뛰쳐나오고 있는 것이다. '섹스 스페셜리스트' '섹스 원죄 어디까지인가' '연애와 섹스를 성공시키는 테크닉' '섹스도 비즈니스다' '101가지 러브선언' '침실가꾸기' '정력을 증강시키는 법'. 웬만한 규모의 서점에는 따로 특설 서가를 마련해야 할 만큼 많이 나와 있는 이른바 성지침서들은 공개된 '방중술'의 대표적인 형태다.

자극적인 것들의 짜깁기

제대로 된 성교육이라는 게 따로 없는 우리 실정에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과 성지식을 알려줄 지침서들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나 최근 넘쳐나는 책들이 이러한 필요를 적절하고 충실하게 충족시켜주는가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많다.

국내에 나와 있는 이른바 성교육서들에서 가장 먼저 발견되는 혐의점은 외국책의 무분별한 베끼기. '성'도 사람살이의 한 일인데 그 사람이 살아온 역사와 사회의 환경에 따른 독특한 문화가 없을 리 없다. 그런데 현재 나와 있는 대부분의 관련서들은 우리 실정을 고려하지 않고 외국 책을 그대로 번역한 것이거나 더 심하게는 일본, 독일, 프랑스 등 국적을 불문하고 이책 저책에서 보다 자극적인 것들을 짜깁기한 것도 적지 않다.

80년대 말부터 '성생활 지침서'라는 시리즈를 발간, 이 분야 전문 출판사로 자리를 굳힌 한 출판사의 사장이 들려주는 이야기는 이 분야 출판의 속사정을 잘 보여준다.

"기획력이나 자본력 등 여러 측면에서 경쟁력이 없는 출판사들이 어렵지 않게 출판할 수 있는 것이 이 분야 책이다. 최근 들어 성에 대한 공개적인 논의와 관심이 늘면서 수요가 늘고 있고 웬만하면 반품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텍스트가 될 다양한 형태의 외국 섹스북들이 많아 이를 참고하기가 쉽다. 87년 이전 출판물이면 저작권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고 번역에 크게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 원저를 밝히지 않은 책의 경우는 대부분 이책 저책에서 짜깁기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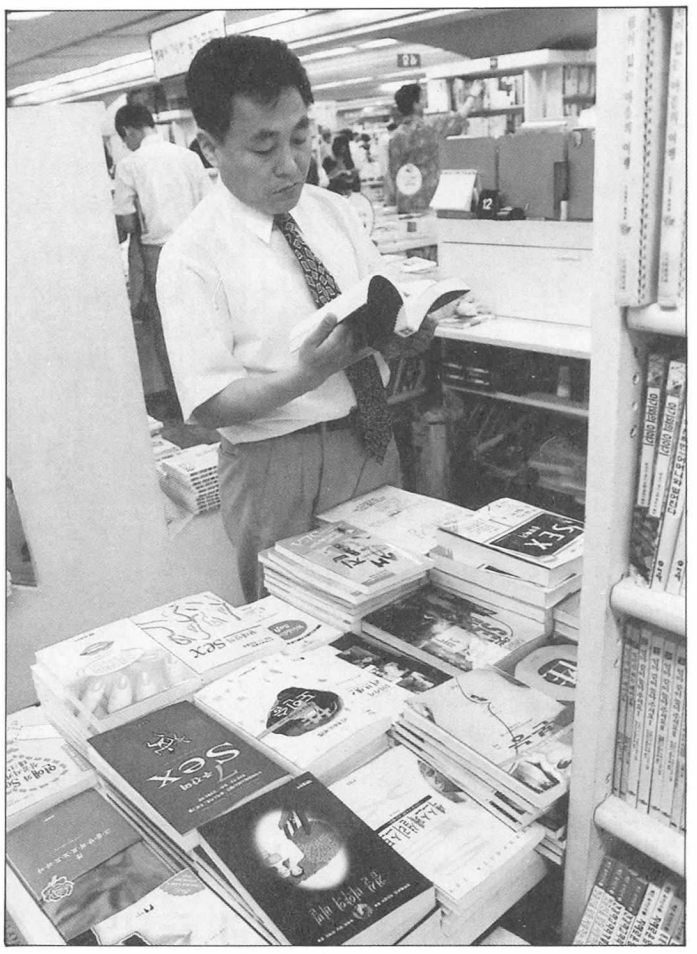
외국 책을 베낀 경우가 아닌 국내 저서들도 제법 많이 눈에 띄는데, 저자들의 전문성, 이들이 가진 성에 대한 가치관들이 그다지 믿을 만하지 못한 것이 또 하나의 문제다.

저자의 약력이 정확하게 명기되지 않은 책도 허다하고, 저술가·성칼럼니스트 등의 약력을 가졌다 하더라도 이들이 대부분 노년에 접어든 연령이라는 점도 믿음을 떨어뜨리는 요소다.

성교육서의 주요 독자들이 청소년이거나 청·장년층임을 감안해보면 저자들이 얼마나 정확하게 독자들의 달라진 가치관과 현실적인 욕구들을 읽어낼 수 있는가 하는 의심이 들기 때문이다.

한편, 최근 들어서는 '남성의학 전문가(비뇨기과 전문의)'들이 이 분야 저자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새집 줄게 헌집다오》《남자의 성》《성 알면 스타 모르면 애타》《현대인의 섹스》 등이 그것인데, 성문제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가 태부족한 우리 실정에서 그나마,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는 이들의 저서에 쏠리는 독자들의 관심도 적지 않다. 그러나 이 책들의 내용이 대부분 저자 자신의 임상경험담에 그치고 있어 본격적이고 전문적인 책이라기에는 부족함이 많다는 평이다.

성을 올바르게 가르쳐주는 지침서들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나 최근 넘쳐나는 책들이 과연 이러한 필요를 충족시켜주는지에 대해선 의심의 여지가 많다. 철학은 없고 테크닉만 있는 국적불명의 책들이 범람하는 현상은 곧 우리 '성문화의 현주소'를 그대로 보여준다.



테크닉만 난무하는 이른바 성교육서들이 오히려 잘못된 성문화를 조장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많다.

전문가 부족

지난해 5월에 출간, 현재까지 약 3만부가 팔린 것으로 알려진 독일의 사회학자 아멘트 박사의《섹스북》을 발간한 박영률출판사의 엄진섭씨는 "우리 현실에 맞게 성의 다양한 측면을 고찰하고 올바른 성의식을 고양시킬 수 있는 글을 쓸 수 있는 진정한 '전문가'를 찾기가 쉽지 않아 번역서에 눈을 돌리게 됐다"고 필자난을 호소한다.

성문제의 공개를 꺼리는 오랜 관습 덕분에 전문적인 연구를 백안시해온 결과다. 시중에 나와 있는 성교육서들의 대부분이 독자들의 연령이나 수준, 처지 등을 고려하지 않고 천편일률적으로 생물학적 성지식의 나열, 성트러블을 해소하는 방안, 방중술의 비법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도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성에 대한 호기심이 극대화되는 청소년층들에게 진정한 교육서로 기능할 만한 책이 그다지 많지 않은 것은 더 큰 우려다. 극단적으로 말해 10대 아들이나 40대 아버지나 내용이 다를 게 없는 책을 들여다보는 웃지 못할 상황이 우리의 현실이다.

출판사의 상업주의, 전문가의 부족, 지나치게 과잉된 독자들의 성에 대한 관심 등이 맞물려, 철학은 없고 테크닉만 있는 국적불명의 책들이 범람하는 현상은 곧 우리 '성문화의 현주소'가 아닐까. 우리 시대 성교육서의 고전이라 할 만한 책이 출간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더욱 절실해진다.

——박남정 기자